

Issue Monitor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삼성KPMG경제연구원

April 2014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이광열
경제연구원
Partner, 삼성KPMG
Tel: + 82 2 2112 0062
kwangryeolyi@kr.kpmg.com

조진희
경제연구원
Manager, 삼성KPMG
Tel: + 82 2 2112 7454
jinhheecho@kr.kpmg.com

이희진
경제연구원
Analyst, 삼성KPMG
Tel: + 82 2 2112 7438
hlee3@kr.kpmg.com

김주형
경제연구원
Analyst, 삼성KPMG
Tel: + 82 2 2112 7769
joohyongkim@kr.kpmg.com

Executive summary	2
2013년 글로벌 M&A 현황	3
국가별 M&A 동향 분석	4
▪ 국가별 ICT M&A Overview	
▪ 크로스보더 M&A	
▪ 미국: 세계 최대의 M&A 시장으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강세	
▪ 영국: 미디어 분야가 ICT M&A 견인	
▪ 중국: 지국 내 전자 및 부품장비 M&A 활발	
▪ 일본: ICT 기업들, 헬스케어·에너지 등 타산업 진출 확산	
ICT 분야별 M&A 동향 분석	12
▪ 인터넷/소프트웨어: 글로벌 ICT M&A 각축장	
▪ 통신/미디어: 규모 및 시장 확대를 위한 M&A 증가	
▪ 컴퓨터/반도체: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 분야 역량 강화	
시사점 및 전망	18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삼성")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시장, 회사,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삼성KPMG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성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KPM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연초부터 글로벌 ICT 산업은 M&A의 바람이 거세다. 구글의 자동온도조절장치 기술력을 보유한 네스트랩 인수,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 굵직한 M&A가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의 M&A는 단순히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의 흥망과 기술의 미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13년 글로벌 ICT M&A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M&A 동향과 ICT 분야별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ICT 기업들의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013년 글로벌 M&A 현황

- 2013년 글로벌 ICT M&A 거래규모는 3,363.7억 달러, 거래건수는 3,417건으로 집계됨.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19.1% 증가함

■ 국가별 M&A 동향 분석

- 글로벌 ICT 산업의 M&A를 주도한 국가를 살펴보면, 전체 거래규모 중 58.3%를 차지한 미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19.1%, 영국이 5.7%, 중국이 5.2%를 차지함. 2013년 글로벌 ICT M&A 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4국이 거래규모 기준으로 88.3%, 거래건수 기준으로 76.2%를 차지하며 글로벌 ICT M&A 시장을 주도함
- 최신 IT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 M&A가 활발해짐에 따라 컴퓨터, 반도체, 부품장비, 전자 등의 하드웨어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안팎으로 비중이 작았으며, 중국은 23.6%로 하드웨어 비중이 높음. 미국은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M&A 거래가 많았고, 영국은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 크로스보더 M&A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과 일본으로 각각 52.2%, 42.6%를 기록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79.5%와 85.8%로 자국 내 M&A 비중이 높음. 비ICT 분야로의 M&A는 일본이 가장 높은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에너지 등 타산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함

■ ICT 분야별 M&A 동향 분석

- 전체 ICT 분야 중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총 3,417건 중 1,391건으로 가장 활발한 M&A를 보임. 반도체, 컴퓨터, 전자, 부품장비 등 하드웨어 분야의 M&A는 ICT 산업 내에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최근 하드웨어 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글로벌 저금리와 미국 및 유럽 경제의 회복 등에 따라 2014년 글로벌 M&A 시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체 글로벌 M&A시장에서 통신·미디어·기술 분야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ICT 산업의 주요 트렌드인 융합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모빌리티, 네트워킹 등의 분야에서 M&A가 확대되고, 이로써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지역에서의 가치창출, 기술 플랫폼 확장 등의 이슈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임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2013년 글로벌 ICT M&A 현황

지금의 기술 발달과 네트워크 연결은 일상생활과 사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 정보검색, 예약, 교통 정보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하고 네트워크 접속으로 IT 자원을 시공간 제약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폭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사업을 최적화하거나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등 생산, 구매, 마케팅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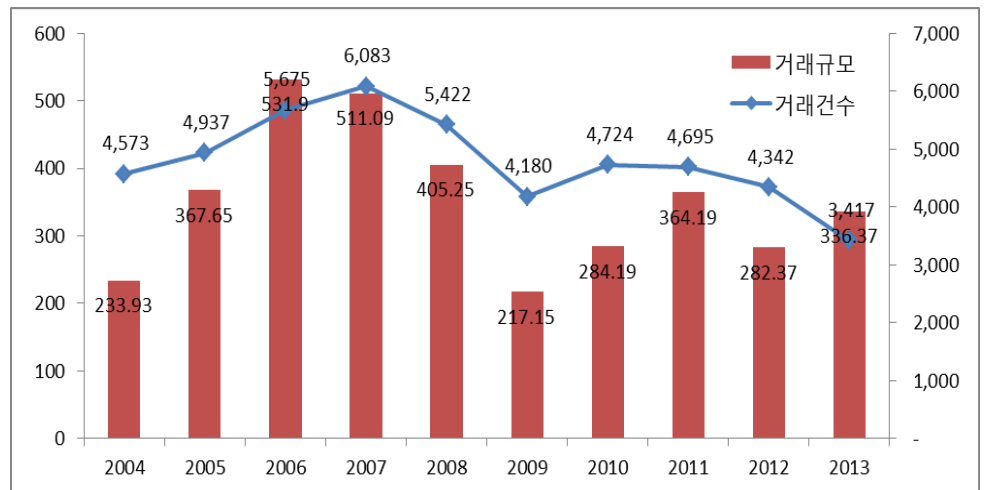
기업의 경영활동 변화는 M&A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M&A는 단순히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흥망과 기술의 미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13년 글로벌 ICT M&A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M&A 동향과 ICT 분야별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ICT 기업들의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년대비 거래 규모는 증가, 건수는 감소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ICT M&A 거래규모는 3,363.7억 달러, 거래건수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19.1% 증가했다.

< 글로벌 ICT 산업의 M&A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Source: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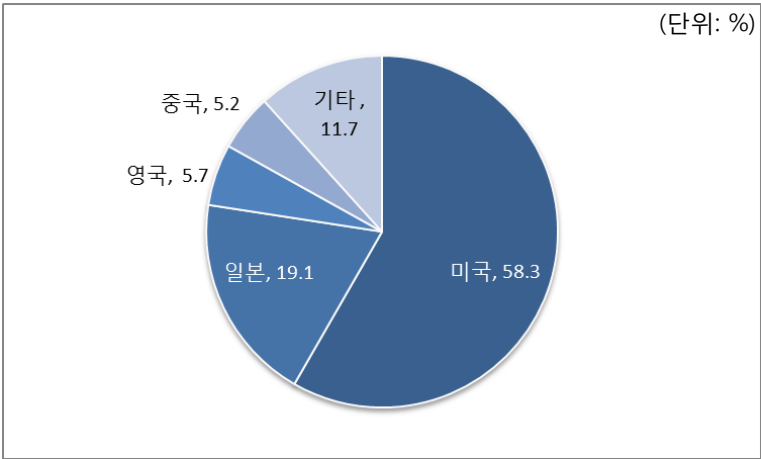
Note: 2013년 완료 기준

국가별 M&A 동향
분석

글로벌 ICT 산업의 M&A를 주도한 국가를 살펴보면, 전체 거래규모 중 58.3%를 차지한 미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19.1%, 영국이 5.7%, 중국이 5.2%를 차지했다. 거래건수에서도 미국이 전체 ICT M&A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M&A 시장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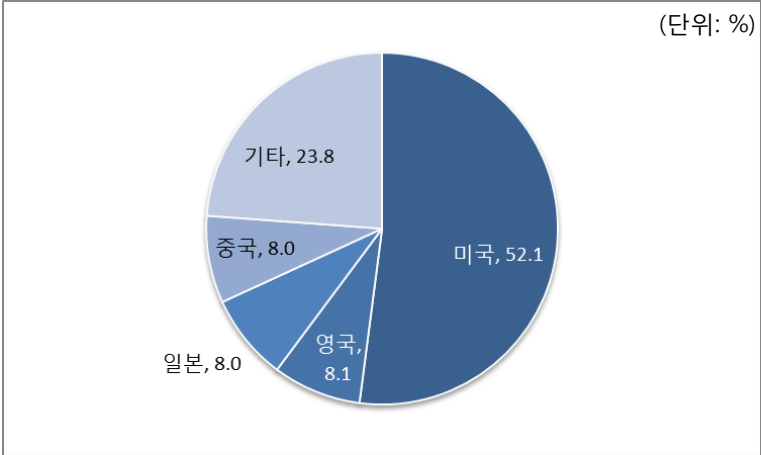
2013년 글로벌 ICT M&A 시장은 앞서 언급한 주요 4국이 거래규모 기준으로 88.3%, 거래건수 기준으로 76.2%를 차지하며 글로벌 ICT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 M&A는 거래규모 기준으로 0.1%, 거래건수 기준으로 2.8%를 기록하며 미미한 수준이다.

< 글로벌 ICT M&A 국가별 거래규모 비중 >



Source: 블룸버그

< 글로벌 ICT M&A 국가별 거래건수 비중 >



Source: 블룸버그

국가별 ICT M&A Overview



미, 영, 일, 중이
글로벌 ICT 시장 주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ICT 산업의 M&A를 주도한 주요 4국의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 분야의 거래규모가 26.7~7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통신 기업은 거래건수는 많지 않지만 개별 거래규모가 큰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통신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통신 산업은 국가 인프라 산업 중의 하나로 국가별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특정 기업만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통신 기업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려는 등의 인수합병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신 분야의 거래규모가 전체 M&A에서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신 IT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 M&A가 활발해짐에 따라 컴퓨터, 반도체, 부품장비, 전자 등의 하드웨어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안팎으로 비중이 작았으며, 중국은 23.6%로 하드웨어 비중이 높았다. 중국은 정부의 대형 ICT 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전자, 부품장비 등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4국 ICT 분야별 건수 비중>

분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통신	10.9%	9.4%	13.2%	16.8%
미디어	15.0%	39.2%	16.2%	7.7%
인터넷	25.1%	14.7%	23.9%	11.7%
소프트웨어	23.7%	16.5%	8.8%	12.0%
컴퓨터	10.7%	5.8%	7.4%	11.7%
반도체	4.8%	3.2%	3.3%	5.5%
부품장비	3.5%	2.5%	7.7%	16.4%
전자	6.4%	8.6%	19.5%	18.2%

Source: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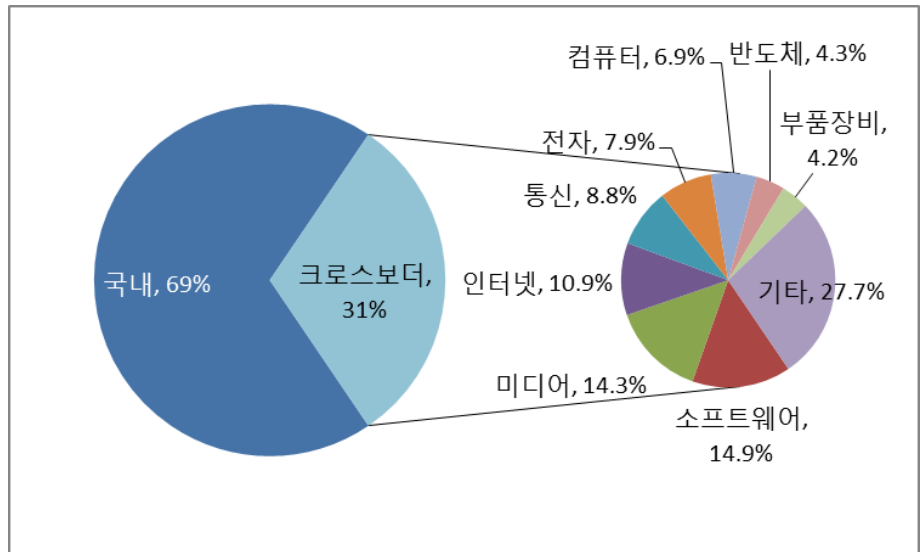
거래건수기준으로 미국은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M&A 거래가 많았고, 영국은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과 영국의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야후, 애플, MS, IBM, 오라클, 시스코 등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M&A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가 약세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거래규모와 유사하게 타국 대비 전자 및 부품장비 등 하드웨어 분야가 강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일본은 인터넷 및 전자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또한 전통적으로 전자 기업이 강세인 국가로 전자 기업들의 관련 분야 다각화 및 타산업 진출에 따른 인수합병이 활발했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크로스보더 M&A

전세계 ICT 산업의 크로스보더 M&A는 1,334건을 기록하며 전체 글로벌 ICT M&A 중 39.0%를 차지했다. ICT 산업별로 크로스보더 M&A 비중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분야가 가장 활발한 크로스보더 M&A를 보였으며, 이어 인터넷, 통신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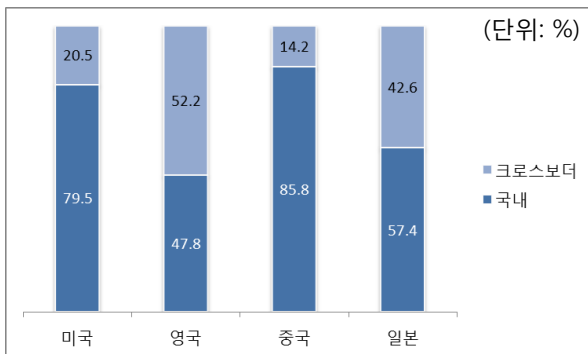
<크로스보더 M&A 분야별 건수 비중>



Source: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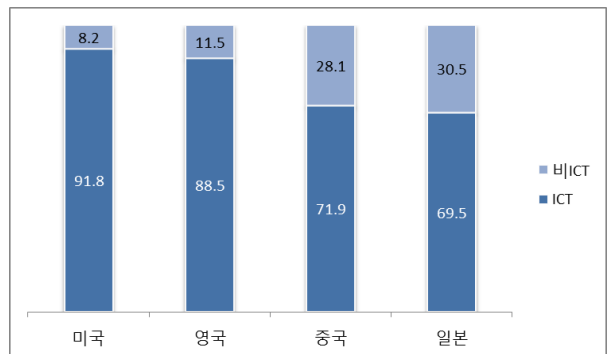
크로스보더 M&A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과 일본으로 각각 52.2%, 42.6%를 기록했다. 특히 영국은 크로스보더 M&A의 47.6%가 미디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국 내 M&A 비중이 높지만, 크로스보더 M&A 건수는 364건을 기록하며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비ICT 분야로의 M&A는 일본이 가장 높은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에너지 등 타산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했다.

< 주요 4국 국내 vs. 크로스보더 M&A 건수 비중 >



Source: 블룸버그

< 주요 4국 ICT vs 비ICT M&A 건수 비중 >



Source: 블룸버그

미국: 세계 최대의 ICT M&A 시장으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강세

미국 ICT 산업은 2013년 총 1,779건의 M&A를 기록했다. 미국은 글로벌 ICT M&A 시장에서 거래규모기준으로 58.3%, 거래건수기준으로 52.1%를 차지하며 전세계 ICT M&A을 이끌고 있다. 2013년 미국 ICT M&A의 큰 특징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구글, 애플, IBM, MS, 오라클 등 글로벌 ICT 기업이 대거 포진한 미국은 최근 ICT 트렌드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M&A 증가로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전체 ICT 분야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M&A가 80%로 압도적이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IT 기업들을 발굴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야후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텀블러 인수(11억 달러)와 온라인 여행서비스 업체인 프라이스라인의 여행가격 비교 사이트인 카약 인수(6억 5,000만 달러), 이베이 페이팔의 모바일 결제 회사 브레인트리 인수(8억 달러)다.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M&A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로스보더 M&A는 총 364건으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50%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상 국가는 영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로 나타났다. 특히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인수가 눈이 띄는데, 구글·애플·인텔·IBM 등 미국 주요 ICT 기업들은 IT 기술력이 뛰어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중이다. 2013년 글로벌 ICT M&A 중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M&A는 총 24건으로, 이중 미국은 18건을 기록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소셜 네트워킹 네비게이션 업체인 웨이즈를 인수했으며, 애플도 지난 11월 3D 영상인식 센서 기술을 보유한 프라임센스를 사들였다. 미국 기업들은 주로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미국의 이스라엘 기업 인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발표일	인수금액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소프트웨어	2012-11-28	611.54	NCR Corp	Retalix Ltd
	2013-01-21	4.70	Runa Capital, Previz Ventures	Cellrox Ltd
	2013-01-23	475.00	Cisco Systems Inc	Intucell Ltd
	2013-03-05	235.00	Allscripts Healthcare Solutions	dbMotion Ltd
	2013-03-14	6.50	Qumu Corp, Aviv Venture Capital	BriefCam Ltd
	2013-03-23	42.00	CA Technologies	Nolio Ltd
	2013-04-22	7.50	Citrix Systems, Maayan Ventures	Gizmox
	2013-04-24	2.00	New York Times Co	Dynamic Yield Ltd
	2013-06-11	969.00	Google Inc	Waze Ltd
	2013-06-19	6.40	Mail.ru Group, Horizons Ventures	Cortica Inc
	2013-07-09	N/A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SL International
	2013-08-02	11.00	Robert Bosch Venture Capital GmbH	Pebbles Ltd
	2013-11-11	8.00	Salesforce.com Inc	Checkmarx Ltd
	2013-09-17	N/A	F5 Networks Inc	Versafe Ltd
통신장비	2013-08-19	16.00	SageNet	Spacenet Inc
헬스케어	2013-10-29	5.00	Elron Electronic Industries Ltd	Cartiheal Ltd
반도체	2013-11-25	N/A	Apple Inc	PrimeSense Ltd
전자	2013-12-18	N/A	Emerson Electric Co	APM Automation Solutions

Source: 블룸버그

미국, 이스라엘 IT 기업
인수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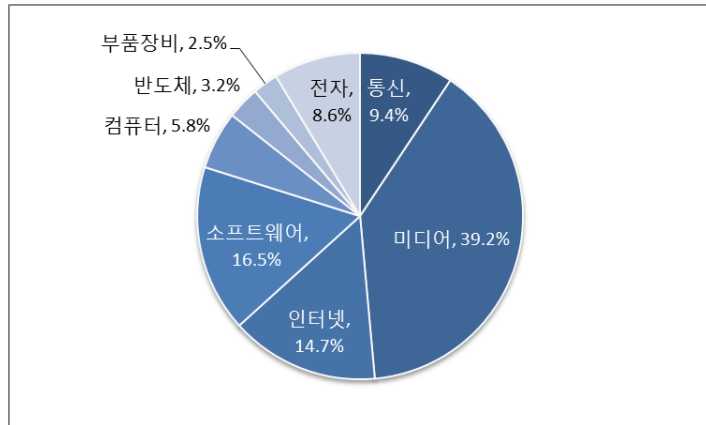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영국: 미디어 분야가 ICT M&A 견인

영국은 2013년 ICT M&A에서 278건을 기록했다. 영국 ICT M&A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디어 분야가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프트웨어(16.5%), 인터넷(14.7%)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로스보더 M&A 거래규모는 영국 전체 ICT M&A 중 83.2%인 158억 달러에 달하고, 주로 통신,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이며, 주요 M&A 대상국은 미국이 61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12건), 호주(6건), 네덜란드(6건), 중국(4건) 순으로 집계됐다.

영국 ICT M&A의 가장 큰 특징은 타국 대비 미디어 분야의 M&A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미디어 분야는 전체 크로스보더 M&A 중 47.6%인 69건으로 가장 높았다. 영국은 전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7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낮고, 중공업의 몰락 및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하면서 미디어 및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방송 및 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이 발달했다.

<2013년 영국의 ICT M&A 분야별 비중>



Source: 블룸버그

이중 주목할 만한 M&A는 영국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그룹 피어슨이 전자책 사업 진출을 위해 반스앤노블의 누크미디어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이를 통해 피어슨은 미국의 온라인 서점과 674개 오프라인 서점을 활용하여 전자책과 대학 교재 사업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영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광고 기업인 WPP는 ICT 기업 중 가장 적극적인 M&A 행보를 보이며 전체 미디어 M&A 93건 중 33건을 기록했다.

*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영국은 1997년 중공업의 몰락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국가 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광고, 건축, 미술품 및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양방향 오락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13개 분야를 핵심 영역으로 선정하고 창조산업테스크포스(CITF: Cultural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창조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중국: 자국내 전자 및 부품장비 M&A 활발

2013년 중국의 ICT M&A 거래건수는 274건을 기록했다. 중국의 ICT M&A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가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통신 16.8%, 부품장비 16.4%, 소프트웨어 12%, 인터넷 11.7%, 컴퓨터 11.7%인 것으로 나타나 타국 대비 하드웨어 분야의 비중이 높다. 또한 크로스보더 M&A보다 자국 내 M&A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자국 내 M&A는 전체 274건 중 85.8%인 235건을 기록했다. 자국 내 M&A에서도 전자, 부품장비, 통신의 비중이 54%로 과반을 넘는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전자 및 부품장비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자국 내 크고 작은 ICT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단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및 기술력을 강화시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화웨이와 ZTE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각각 16.5%, 7.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다.

“중국, 전자 부품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분야까지 ICT 전 분야로 영향력 확대 중

중국은 전자, 부품장비 등 하드웨어 산업을 시작으로 ICT 전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 부품장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분야의 M&A도 활발하다.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들의 M&A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인터넷 포털업체인 바이두는 18억 5,000만달러(약 1조9,970억원)에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91와이어리스를 인수했으며,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내비게이션업체인 오토나비의 지분 28% (2억 9,400만달러)를 취득했다. 중국 최대 게임 및 메시징 서비스 업체인 텐센트는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체인 소고우의 지분 36.5%를 인수했다. 과거 중국기업들은 경쟁기업의 서비스를 बे끼기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핵심사업을 영위하는 우수벤처기업을 빠르게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중국 3대 인터넷 기업의 M&A 현황>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사업영역	인수금액(억달러)
바이두	91와이어리스	모바일앱스토어	18.5
	PP스트림	P2P 비디오서비스	3.7
	누오미	전자상거래사이트	1.5
	PW리터러처	온라인책퍼블리셔	0.32
알리바바	시나웨이보	마이크로블로그서비스	5.86
	오토나비	내비게이션	2.94
	TF펀드	뮤추얼펀드 판매사	1.93
	우멩	모바일 데이터 분석	0.8
텐센트	샤오미	스마트폰 제조사	20
	소고우	인터넷 검색엔진	4.48

Source: 블룸버그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

**중국 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해
외진출)' 전략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는 더욱 확대될
전망**

중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로스보더 M&A 비중이 낮은 편이나, 중국 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 1월 중국 정부는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합동으로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 M&A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2년 기준 중국 내 연매출 1,000억 위안(약 17조원) 이상의 ICT 분야 중국 기업은 화웨이, 레노버, 하이얼 등 3개 기업에 그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연매출 1,000억 위안 규모의 대형 ICT 기업을 5~8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해외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로 인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일본: ICT 기업들, 헬스케어·에너지 등 타산업 진출 확산

2013년 일본의 ICT M&A 거래건수는 272건을 기록하며, 글로벌 ICT M&A에서 거래건수기준으로 8.0%의 비중을 차지했다. ICT 분야별 M&A 비중은 인터넷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자 19.5%, 미디어 16.2%, 통신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크로스보더 M&A(42.6%)와 비ICT 분야로의 M&A(30.5%)가 타국 대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시바, M&A를 통해
헬스케어 및 에너지
분야로 사업 확장 중

최근 일본 기업들은 해외진출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M&A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부품공급망의 분산 및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해외 M&A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일본 ICT 기업들의 타산업 진출을 위한 M&A가 활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06년도에 미국 웨이팅하우스를 인수하며 원자력 발전설비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 도시바는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독일 에너지업체인 사이버 그리드를 인수했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에너지 사업, 스토리지 사업과 함께 헬스케어 사업을 세 번째 주력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헬스케어 관련 업체에 대한 M&A를 지속하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일본 ICT기업의 타산업 M&A 주요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진출분야	발표일	인수금액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국가	피인수기업 사업영역
에너지	2013-02-12	N/A	Yokogawa Electric Corp	Soteica Visual MESA	미국	Energy-Alternate Sources
	2013-07-03	N/A	Toshiba Corp	CyberGrid GmbH	독일	Energy-Alternate Sources
	2013-03-27	N/A	Horiba Ltd	Cameron's process analytical division	-	Oil Field Mach&Equip
헬스케어	2013-01-28	N/A	Infocom Corp	Medical Radial Ray unit	-	Medical Products
	2013-11-13	243,414.08	Hitachi Ltd	Hitachi Medical Corp	일본	Medical Instruments
	2013-07-30	14,962.04	Hoya Corp,Saints Capital LLC	InnFocus LLC	미국	Medical Products
	2013-02-28	9,782.73	Toshiba Corp	TI Medical Systems Co Ltd	한국	Medical Imaging Systems
	2013-06-05	5,649.84	SOL Holdings Corp	Sorghum Japan Co Ltd	일본	Agricultural Biotech
자동차	2013-04-23	84,551.44	Nidec Corp	Nidec-Tosok Corp	일본	Auto/Trk Prts&Equip-Orig
	2012-11-14	59,585.41	Proto Corp	Autoway Co Ltd	일본	Rubber-Tires
	2013-01-29	1,972.90	Tamagawa Seiki Co Ltd	Omori Seikoki KK	일본	Auto/Trk Prts&Equip-Orig

Source: 블룸버그

한편, 2013년 일본 ICT M&A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기업은 소프트뱅크다. 일본의 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는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 키우기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3위 통신사인 스프린트넥스텔을 인수하며 글로벌 통신사로 발돋움했으며, 현재는 미국 4위 통신사인 T모바일 인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 핀란드의 게임업체인 슈퍼셀을 인수하며 게임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ICT 분야별 M&A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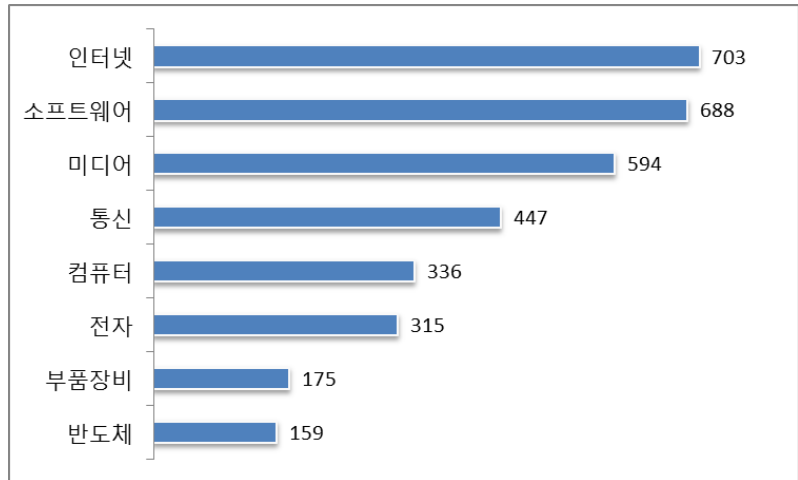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강세,
하드웨어 약세

전체 ICT 분야 중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총 3,417건 중 1,391건으로 가장 활발한 M&A를 보였다. 반도체, 컴퓨터, 전자, 부품장비 등 하드웨어 분야의 M&A는 ICT 산업 내에서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하드웨어 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ICT M&A 분야별 거래건수>

(단위: 건수)



Source: 블룸버그

인터넷/소프트웨어: 글로벌 ICT M&A 각축장

인터넷/소프트웨어 부문은 2013년 ICT 분야별 M&A 중 40.7%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콘텐츠 역량 확보하고 새로운 IT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분야의 M&A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소프트웨어 부문의 M&A를 살펴보면, 최근 IT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관련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객관리솔루션 전문업체 세일즈포스닷컴은 클라우드 부문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인 클라우드커넥트를 인수했고, IBM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해 소프트레이어를 20억 달러에 사들였다. 동사는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 강화를 통해 향후 아마존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전문 기업인 파이어아이는 기존 보안 플랫폼 강화를 위해 보안솔루션 기업인 맨디언트를 인수하며 기존 시장 내 입지 강화에 나섰으며, 시스코도 데이터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와 스토리지 시장 진출을 위해 인시에미 네트워크와 웬데일 등 21건의 인수를 단행하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위 기업들은 기존의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전 인프라 영역을 포괄하는 IT 토탈 솔루션 업체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M&A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PC제조 기업에서 IT 토탈 솔루션 업체로 변신중인 HP, 델 등이 눈에 띈다.

<주요 ICT 기업의 IT 트렌드별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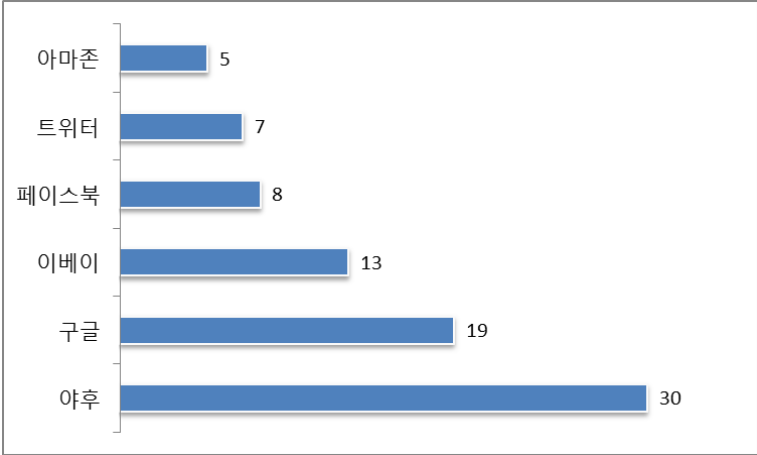
분야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기술영역
빅데이터	시스코	인시에미네트웍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HP	베타카	대용량 데이터 분석 솔루션
	델	APPAssure	데이터 백업
	SAP	아리바	기업용 소프트웨어
	IBM	스타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보안	델	소닉월	보안 솔루션
	파이어아이	맨디언트	악성코드 탐지 가상화 솔루션
	인텔	소튼소프트	네트워크 방화벽 소프트웨어
		센서리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아카마이	프로렉식테크놀로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세일즈포스닷컴	클라우드 커넥트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리 솔루션
	IBM	소프트레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아스페라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델	Make Technologies	클라우드 SW 지원 서비스
	오라클	라스폰시스	클라우드 마케팅 소프트웨어

Source: 블룸버그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M&A 경쟁도 치열하다. 인터넷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M&A 건수를 기록한 야후는 2013년 총 30건의 인수를 단행하며 마리사 메이어 CEO 취임 이후 공격적인 M&A를 추진 중이다. 인수 기업도 다양하다. 야후는 미디어, e마케팅,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여행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등 기술력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만들어진 기업들을 주도적으로 흡수하며 과거의 영광 찾기에 힘을 쏟고 있다. 구글 또한 M&A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e커머스, 사물인터넷, 로봇, 에너지 기업을 사들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영토 확장에 나섰다.



<2013년 주요 인터넷 기업 M&A 건수>
(단위: 건수)



Source: 블룸버그

또한 모바일 메신저 분야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바이버(Viber)를 인수하며, 모바일 분야 사업 확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업체인 왓츠앱을 인수하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기업들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이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수혈받아 끊임없이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인터넷 기업들, 다양한
콘텐츠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 역량
강화 중

<콘텐츠 분야의 주요 M&A>

분야	피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기술영역	인수기업
음악	LastFm	소셜 음악 서비스	CBS
	We Are Hunted	음악 블로그 및 SNS 분석해 전세계 최신곡 서비스	트위터
	Blackwell & Fuller	영국의 음악서비스 업체	CJ E&M
	Redmatica	음악 소프트웨어	애플
	Gracenote	음악 인식 솔루션	트리뷴
지도	WiFiSlam	실내위치 트래킹 기술	애플
	Hopstop.com	뉴욕 등 대도시 대중교통 환승정보	애플
	Broadmap	디지털 지도 제작 및 지도정보서비스(GIS)	애플
	Waze	GPS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구글
모바일	Penultimate	손글씨 노트앱	에버노트
	Catch	노트 애플리케이션(에버노트의 경쟁사)	애플
	OlaWorks	컴퓨터 기술 기반 영상인식	인텔
	WhatsApp	모바일 메신저	구글
	Viber	모바일 메신저	라쿠텐
게임	Supercell	모바일게임	소프트뱅크
	Double Helix	PC 콘솔게임/하드코어 게임 개발사	아마존

Source: 블룸버그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통신/미디어: 규모 및 시장 확대를 위한 M&A 증가

2013년 통신/미디어 분야의 M&A는 각각 1439억 7,000만 달러, 993억 2,000만 달러의 거래규모를 보이며 전체 ICT M&A 중 가장 큰 M&A를 보였다.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 다음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통신/미디어의 M&A는 동일 산업 내에서의 규모를 확대하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시장 확대 및 사업 다각화 위해 M&A 추진 중

일본 소프트뱅크는 미국 3위 통신사인 스프린트 커뮤니케이션즈를 397억 달러에 인수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미국의 4위 통신사인 T-모바일 인수도 추진 중이다. 소프트뱅크는 포화 상태에 이른 일본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 리버티 글로벌은 영국 케이블 통신업계 2위인 버진미디어 인수를 완료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리버티 글로벌은 유럽의 가장 큰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미국 내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는 공중파 방송사인 NBC를 인수함으로써 미국내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미디어 업체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글로벌 통신 및 미디어 분야 M&A Top 10>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인수가액	인수업체		피인수 업체	
		업체명	국가	업체명	국가
1	39,739.40	Softbank Corp	일본	Sprint Communications	미국
2	28,975.90	T-Mobile US	미국	T-Mobile US	미국
3	21,627.20	Liberty Global PLC	미국	Virgin Media Inc	영국
4	16,700.00	Comcast Corp	미국	NBC Universal	미국
5	11,185.70	Vodafone Group	영국	Kabel Deutschland Holdings AG	독일
6	4,800.00	American Tower Group	미국	MIP Tower Holdings	미국
7	4,539.10	Dentsu Inc	일본	Dentsu Aegis Network Ltd	영국
8	4,422.70	BC Partners Holdings	영국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GmbH	독일
9	3,759.90	BCE Inc	캐나다	Astral Media	캐나다
10	3,603.80	Sprint Communications	미국	Clearwire Corp	미국

Source: 블룸버그

컴퓨터/반도체: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 분야 역량 강화

2013년 컴퓨터/반도체 분야의 M&A는 495건을 기록하며 ICT M&A 중 거래건수 기준으로 14.5%를 차지했다. 컴퓨터/반도체 분야의 최대 M&A는 창업주인 마이클 델과 사모펀드인 실버 레이크가 공동으로 델을 인수한 것으로 최근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합병이었다. 또한 반도체 부품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일본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 인수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D램 부분 3강 구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네델란드 반도체 설비업체인 ASML 홀딩스는 미국 레이저 전문업체인 사이머 인수를 하며 노광 장비 탑재용 극자외선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인텔은 2013년 21건의 M&A를 단행하며 적극적인 M&A 전략을 펼친 가운데, 전체 중 12건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분야로 핀란드의 데이터 보안업체인 스톤소프트를 인수하며 소프트웨어 분야로의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5월 미국의 멀티스크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모블을 인수하고, 7월에는 이스라엘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박시의 핵심 인력과 기술 부분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M&A는 현재의 주력 사업을 보강하는 기술 업체 위주로 역량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2013년 인텔의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발표일	인수금액	피인수기업	국가	사업영역
2013-05-06	367.63	Stonesoft OYJ	Finland	Computer Data Security
2013-05-09	120.00	Mashery Inc, Aepona Holdings Ltd	U.S., Ireland	Internet Infrastr Sftwr
2013-01-10	30.00	Guavus Inc	U.S.	Decision Support Software
2013-09-13	26.00	Indisys SL	Spain	Applications Software
2013-02-06	25.00	Urban Airship Inc	U.S.	Applications Software
2013-11-05	17.50	Sprinklr Inc	U.S.	Internet Applic Sftwr
2013-02-05	15.00	Sprinklr Inc	U.S.	Internet Applic Sftwr
2013-02-25	7.80	Altobridge Ltd	Ireland	Wireless Equipment
2013-01-14	5.80	Persimmon Technologies Corp	U.S.	Industrial Automat/Robot
2013-10-27	3.00	Rocketick Technologies Ltd	U.S.	Electronic Compo-Semicon
2013-02-21	3.00	Nexmo Inc	U.S.	Internet Telephony
2013-07-24	N/A	Oasys Design Systems Inc	U.S.	Applications Software
2013-08-13	N/A	Fujitsu Semiconductor Wireless Products Inc	U.S.	Research&Development
2013-07-23	N/A	Xtreminsights LLC	U.S.	Consulting Services
2013-02-27	N/A	ValidEdge Inc	U.S.	Computer Data Security
2013-11-08	N/A	Kno Inc	U.S.	Educational Software
2013-01-02	N/A	SanJet Technology Corp	Taiwan	Applications Software
2013-05-28	N/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ssets & IPR	Switzerland	Satellite Telecom
2013-05-24	N/A	GPS Mobile Business	Switzerland	Electronic Compo-Semicon
2013-02-21	N/A	Fortumo OU	Estonia	Satellite Telecom
2013-03-11	N/A	Geofusion/BR	Brazil	Internet Applic Sftwr

Source: 블룸버그

<2013년 삼성전자의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발표일	인수금액	피인수기업	국가	사업영역
2013-05-06	N/A	MOVL LLC	U.S.	Applications Software
2013-01-28	153.66	Neurologica Corp	U.S.	Medical Imaging Systems
2013-03-06	110.55	Sharp Corp/Japan	Japan	Audio/Video Products
2013-01-30	58.91	Wacom Co Ltd/Japan	Japan	Computers
2013-05-22	47.30	Pantech Co Ltd	South Korea	Wireless Equipment
2013-07-03	30.00	Boxee Inc	U.S.	Internet Applic Sftwr

Source: 블룸버그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시사점 및 전망

2013년 글로벌 ICT 산업의 M&A의 큰 특징은 첫째, 미국·일본·영국·중국 등 4국이 거래규모 기준으로 전체 ICT M&A의 88.3%, 거래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크로스보더 M&A는 전체 ICT M&A 중 39.0%를 차지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 분야의 크로스보더 M&A가 활발했는데 이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분야와 영국의 미디어 분야의 크로스보더 M&A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ICT 세부 산업별 M&A를 살펴보면,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적극적인 M&A를 보였다. 최근 ICT 산업의 트렌드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M&A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 및 부품장비 등의 하드웨어 분야의 M&A는 저조했으며, 최근에는 하드웨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일본·영국·중국의 ICT 기업들은 글로벌 ICT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IT 발전과 기술 혁신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기술에 일일이 대응이 어렵고, IT와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해 필요한 기술 영역과 생태계 확장에 기인한다. M&A 전략은 현재의 IT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2014년 글로벌 M&A
긍정적 예상,
전체 M&A 중
통신·미디어·기술
분야 가장 활발

2014년 글로벌 ICT M&A는 2013년과 같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분야의 M&A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난 12월 미국 KPMG는 1,000명 이상의 M&A 전문가와 일반기업, 사모펀드, 투자은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글로벌 M&A 시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저금리와 미국 및 유럽 경제의 회복 등에 따라 2014년 M&A 시장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전체 글로벌 M&A 시장에서 통신·미디어·기술 분야가 전체 M&A에서 44%를 차지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산업의 주요 트렌드인 융합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모빌리티, 네트워킹 등의 분야에서 M&A가 확대되고, 이로써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지역에서의 가치창출, 기술 플랫폼 확장 등의 이슈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글로벌 M&A에서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통신 · 미디어 · 기술	44%	에너지 · 오일 · 가스	27%
헬스케어 · 제약 · 라이프 사이언스	41%	소비재	21%
금융 서비스	28%	다양한 산업	18%

Source: KPMG 2014 M&A Outlook Surve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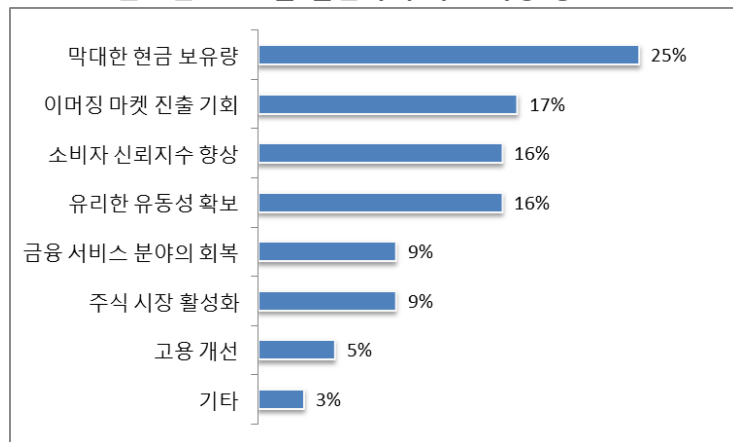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기업들, 막대한
현금보유량을
기반으로 M&A 확대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2014년 글로벌 M&A를 활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들의 막대한 현금 보유량(25%)을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17%)와 소비자 신뢰지수 향상(16%), 유리한 신용 유동성 확보(16%) 등을 꼽았다. 2013년 글로벌 M&A 시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위축으로 많은 기업의 현금보유량을 증가시켰으며, 현재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7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10년 전보다 2배나 많은 수치로 이 막대한 자금력은 2014년 M&A 시장의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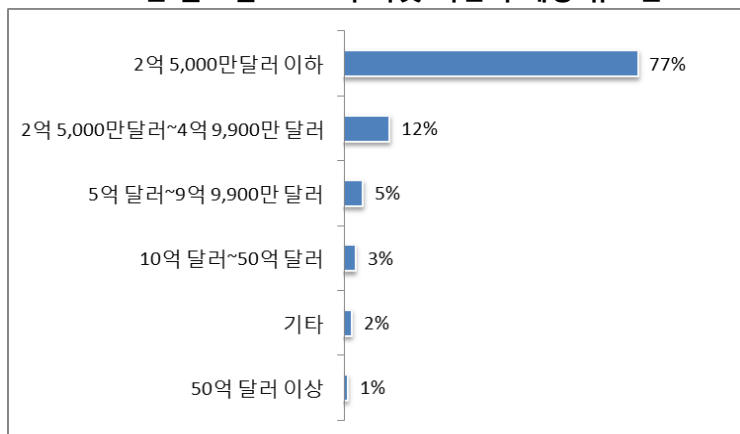
<2014년 글로벌 M&A를 활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Source: KPMG 2014 M&A Outlook Survey Report

한편, 2013년에는 통신사간 합병 등과 같은 대형 M&A가 많았던 반면, 2014년에는 기업가치가 2억 5,000만달러 이하의 중간시장(Middle-Market)에 위치한 기업들을 타겟으로 M&A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아직까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중소기업 M&A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글로벌 M&A시 타겟 기업의 예상 규모는?>



Source: KPMG 2014 M&A Outlook Surve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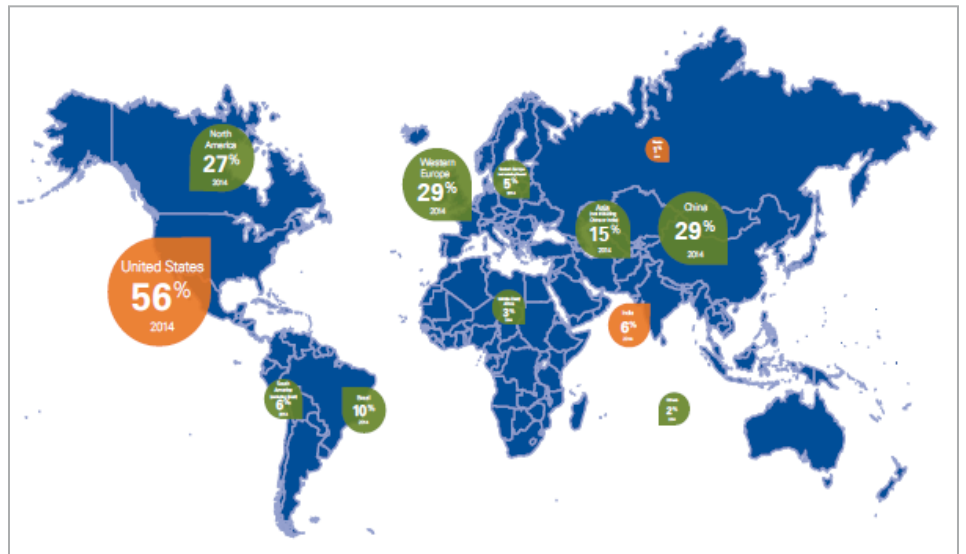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및 전망

“

2014년 글로벌 M&A,
미국 주도, 아시아
시장의 부상

2014년 글로벌 M&A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 글로벌 M&A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 미국의 뒤를 이어 서유럽(29%)과 중국(29%)에서 활발한 M&A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인도 지역 또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지목했다. 응답자들은 중국 및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중국은 전년보다 10% 이상 M&A가 확대되면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M&A 대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레노버는 2014년 연초부터 IBM의 서버 사업과 구글의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을 사들이며, 해외 시장 지배력 강화와 내수 시장 선점을 위해 M&A를 확대하고 있다. 레노버 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도 2014년 벽두부터 자국기업과 해외기업 연이어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14년 글로벌 M&A에서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Source: KPMG 2014 M&A Outlook Survey Report

2014년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 따라 M&A를 통한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M&A는 확대되고 있다. 2014년 1분기 M&A 총 거래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5,260억달러를 기록했다. ICT 분야의 M&A도 적극적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M&A는 2014년 1분기 561건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모습이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업 간 융합이 확대되는 현재의 IT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기업들의 M&A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조진희

책임연구원

T: 02-2112-7454

E: jinheecho@kr.kpmg.com

www.kr.kpmg.com

© 2014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